

손님 셋

어떤 집에서 손님 세 명을 초청하였습니다. 손님이 돌아간 뒤에 보니 값진 촛대가 없어졌습니다. 이튿날 주인은 전날 왔던 손님 세 명을 데리고 랍비에게 갔습니다.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랍비는 자초지중 이야기를 듣더니 긴 턱수염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.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.

“나는 비법을 알고 있소, 이제부터 옆방을 캄캄하게 해 두겠소. 그리고 중앙 테이블 위에 촛대를 올려놓을 것이요. 당신들은 차례로 한 사람씩 들어가서 촛대를 만지고 나오도록 하십시오.”

네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

“나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. 그 촛대에 신비한 힘을 줄 것입니다.

만일 어젯밤에 촛대를 훔친 사람이 그 촛대를 만지면 번개 맞은 것처럼 온 몸이 마비되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.”

한 시간이 지났습니다. 랍비는 옆방에 촛대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. 먼저 주인이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. 주인도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나머지 세 명도 들어갔습니다. 그러나 비명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

랍비는 네 명을 세우고 범인을 찾았습니다. 네 명에게 손을 내밀도록 하였습니다. 한 명만 깨끗하였습니다. 그가 범인이었습니다. 랍비는 범인을 찾기 위하여 촛대에 검댕이를 묻혀 놓았던 것입니다.